

2022 동물자유연대 연차보고서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당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3년 4월 19일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홈페이지 www.animals.or.kr



목차

- 03 감사의 말
- 04 동물자유연대
- 06 걸어온 길
- 08 한눈에 보는 2022
- 10 활동보고
- 30 재정보고

“

우리의 동물운동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림으로 가는 길목

”

동물자유연대가 2023년에 24년 차 활동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동물에 대한 시민 의식 확산에 주력하며 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며, 동물 관련 법들의 강화와 기업의 케이지 프리 선언(케이지에 가두지 않은 암탉이 낳은 계란만 판매)을 이끌고, 남방큰돌고래 방류, 사육곰 및 경주마 구조 등 동물복지의 전환점을 만들어나가며 뛰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크고 작은 많은 동물단체들이 생겨나며 각각의 미션으로 동물을 대신한 결사체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물 정책 분야 또는 캠페인 활성화에 전문성을 키우는 단체를 비롯해 동물 구조 전담 단체, 안락사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유기동물 입양 활동 단체, 길고양이 보호 단체 등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뛰고 있습니다. 동물권 확립과 동물복지 증진에 있어 모두가 귀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2월에 동물복지전담 부서를 '과'에서 '국'단위로 승격하여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2000년부터 활동하면서 중앙부처에 동물복지전담부서가 없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며 요구하던 중 2018년에 '동물복지정책과'가 임시 조직으로 개설되었고 2020년에 정식으로 '과'로 자립 잡은 지 2년 후 2022년 12월에 '국'단위로 승격한 것은 우리 시민들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더딘 듯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보다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며 동물복지 증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동물자유연대는 역할을 더 폭넓게 확장해나가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끼게 됩니다. 더 고도화된 직접 활동과 더불어 풀뿌리 단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 내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협력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정된 동물운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함께해 주심과 같이 보다 큰 계획으로 동물운동이 자리 잡아가는 데에도 지속적인 응원으로 함께 하여 주십시오.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미션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 윤리적* 조화

비전

인간이 관리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며,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인다.

*생태적 조화: 인간 또한 생태계의 부분으로서 동물의 지배자가 아닌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윤리적 조화: 인간은 자아가 있는 지적 생명체로서 이웃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합니다.

왜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해야 할까요?

1. 대한민국 대표 동물단체

회원수 최다로 이미 가장 많은 시민이 지지하는 동물자유연대는
반려, 농장, 전시, 실험, 길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위해 폭넓게 활동합니다.

2. 동물구조, 입양 전문성

최고의 동물구조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반려동물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구조동물에 새 삶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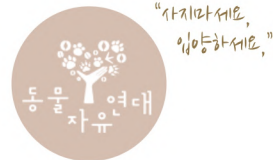
3. 투명한 후원금 운용

2013년부터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진행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공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 내역을 매월 후원자별로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2000

동물자유연대(구 한국동물복지협회) 창립
동물 입양문화 확산 활동



2004

동대문구 길고양이 학살계획 저지

2005

동물보호법 개정 캠페인, 첫 개정 국회 통과
국내 최초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사회적 지위 개선)

2007

농장동물 실태 조사 및 농장동물 복지 공론화

2008

동물이슈 첫 계간지 창간
<함께 나누는 삶>

2010

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첫 사례
(잠실 동물학대사건)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동물구호 방향성 제시
(연평도 포격 구호 활동)



2017

법률지원센터 출범

2016

강아지공장 실태 폭로
(정부에 동물복지전담부서 마련 계기)
풀뿌리단체 협업을 통한 지역 동물운동 토대 구축

2013

수족관 돌고래 방류 캠페인 성공
국내 최초 동물복지형 보호소 온센터 개관

2012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활동
(크루엘티 프리 인터내셔널 한국 파트너 참여)

2011

세빛섬 모피쇼 철회 촉구 및 반대 시위
하프물범 살리기 캠페인
(7개 주요 제약사 하프물범 오메가-3 생산 중단 결정)



2022

사육곰 22마리 미국 생추어리 이주
고양이보호시설 온캣 개관

2018

어린이대공원 사자가족 미국 생추어리 이주
산란계 철창 해방을 위한 케이지프리 캠페인 런칭

2019

구포 개시장 폐쇄
사육곰 구조 활동

2021

암탉을 위한 국내 최초의 메타버스 캠페인



한눈에 보는 202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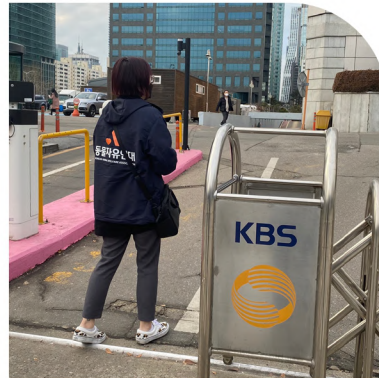
사육곰 22마리 생추어리 구출

1981년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 권장 하에 시작된 사육곰 산업. 동물자유연대는 사육곰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2010년대 초반부터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19년 구출할 사육곰이 있는 농가와 협의하고, 사육곰들을 평생 보호해 줄 수 있는 미국 내 생추어리를 확보하며 사육곰의 대거 구출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의 야생동물 반입 승인이 늦어지며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인고의 시간 끝에 2022년 3월 15일 드디어 22마리의 사육곰을 미국 생추어리로 최종 구출에 성공하였습니다.

2

퇴역 경주마 학대 폭로 및 구호

KBS 사극 드라마 촬영장에서 낙마장면 연출을 위해 희생된 퇴역 경주마 '마리아주'. 마리아주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와이어 함정에 고꾸라지며 크게 다쳤고 결국 촬영장의 소품으로 희생돼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착취형 산업 아래 존재하는 말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도 복지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말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퇴역 경주마를 비롯하여 국내에 존재하는 말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동물카페 학대 고발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11월 서울에 위치한 한 체험형 동물카페의 추악한 실체를 TV프로그램 방영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학대 살해까지 자행했던 해당 동물카페의 사망 동물은 2021년 9월부터 확인 된 것만 10마리가 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들의 긴급 격리를 요청하여 직접적인 보호에 나선 한편, 해당 업주를 고발하고 시민들의 탄원을 조직하여 강력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했습니다. 또한, 동물카페가 전면 금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관계 부처를 압박하고 입법기관에 관련법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119 동물 구조 대상' 런칭

소방청이 공개한 구조활동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 해 동물 관련 출동만 8만 2,932건으로 하루 평균 227건에 달합니다.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구조대원분들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새 삶의 기회를 얻고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는데 힘쓰고, 생명 존중을 실천해 사회적 인식 변화에 앞장선 구조대원과 소방서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119동물구조대상을 마련하였습니다.



5

제2온센터 '온캣' 개관

파주에 지어진 제2온센터 온캣은 설계 단계부터 고양이 맞춤형으로 지어졌습니다. 국내엔 생소한 캣티오(Catio)는 고양이 전용 베란다 및 테라스 시설로서, 고양이들이 안전한 돌봄 속에서 야외의 햇빛과 바람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공간의 제약 속에서도 개별 공간을 확보하여 분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고양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개체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활동보고

온센터
구조·학대 대응
지원사업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전시동물
정책과 입법
연구조사



*2022년 22마리 사육곰을 구조한
미국 내 생추어리(TWAS) 임시 적응시설 전경

온센터

국내 최초로 설립된 동물복지형 보호소인 온센터는 생존을 위한 시설이 아닌, 구조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태적 특성에 맞는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동물복지형
보호소 운영

동물입양
활성화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

ON DOG



전문인력 운영 | 야외활동 시설 | 노견정 운영

최대 250마리의 개를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동물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속 동물병원, 대형견 및 중소형견 별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어질리티와 운동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 원활한 입양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ON CAT



캣티오 설치 | 넓은 운동장 | 개방형 보호소

최대 150마리의 고양이를 수용 가능한 보호 공간을 기본으로 하며 내부와 외부로 잇는 캣티오를 통해 구조 고양이의 복지를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상담실, 교육실, 잔디마당과 같은 시민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전문 돌봄시설 온캣 개관

고양이 전문 돌봄시설 온캣이 2022년 10월 18일 개관했습니다. 온캣은 고양이만을 위한 선진형 보호시설로서 종 특성에 따라 특화된 복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구조 동물의 복지 충족은 여전히 확산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고양이 이주와 적응

제1온센터인 온독에서 보호하는 고양이를 이동봉사자와 함께 보호 동물 간의 친밀도를 바탕으로 이동 그룹을 지정하여 순차적 이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부진, 변비, 우울증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고양이는 행동 관찰, 체중 및 급여량 확인, 약물치료, 병원 진료 및 처치하여 세심하게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 동물의 성향에 따라 묘사를 배정하여 이주 고양이 63마리가 온캣 보호시설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온캣 운영의 시작

‘개관식’ 개최를 시작으로 ‘미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하여 회원 및 시민에게 온캣을 소개하였습니다. 온캣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였고 캠페인 및 입양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 구조된 고양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온캣 고양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길 바란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동물을 위해 활동하는 동물자유연대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마을 공존 사업

온독 주변 동네고양이 TNR을 진행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물하기 위해 마을 개들에게 매주 찾아가 견사 청소 및 사료와 간식을 챙기고 견사도 지어 짧은 목줄을 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1키티즈 활동 및 고양이 입양 증가

11번가 희망쇼핑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호 고양이 11마리가 '11키티즈'란 이름으로 아이돌을 결성했습니다. "Take Me(Prod. by 코드 쿤스트, Song by 미노이)"라는 곡으로 활동하며 TV동물농장, 크랩, 스브스뉴스 등의 각종 언론사와 광고모델로도 출연하며 유기묘 입양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1키티즈의 활약으로 2022년 더 많은 보호 고양이를 입양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참여형 정기 캠페인

'온 센터에 온데이', '온스쿨' 등 보호소가 궁금하거나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했습니다. 부담없이 보호소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행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산책메이트와 기업봉사 활성화

봄과 가을마다 외부 산책을 진행하는 '산책 메이트', 물그릇 관리를 담당하는 '정기 봉사자' 등 특정 활동으로 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 시켰습니다. 기업의 단체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일손이 많이 필요한 활동에 투입하고 다양한 기업에 동물복지 보호소를 소개하여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동물관리 활동가의 교육 강화

동물 관리 활동가에게 보호동물 건강관리와 사회화 방법을 교육하여 보호동물에게 더 많은 입양의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비건 지향 교육을 통해 자발적 채식 실천을 장려하고 타기관, 동물보호소 견학을 통해 다양한 시각 형성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구조 및 학대 대응

사람에 의해 학대 받고,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위기상황에 놓인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위기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동물복지증진과 동물보호의식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위기동물
구조

동물학대
대응

사회적 구호
대책 촉구

학대 대응

날로 잔혹해지고 빈번해지는 동물학대 상황에서 동물들을 구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지속합니다. 방치, 폭행 등 인간에 의해 생명까지 위협되는 상황에서 동물자유연대는 신속하게 동물을 구조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내어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학대 및 생명 경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11회

기소유예
1건

벌금형
2건

수사종결
1건

구속기소
1건

검찰송치
1건

수사 진행중
3건



수원 개도살 사건



서울시 야생동물카페 학대 사건



순천 리트리버 가혹 행위 사건

동물 구조

사선에 있는 동물들의 구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동물들의 상황은 너무도 다양하기에 활동가들에게 동물의 습성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의 안전한 구조를 돕기 위해 제보 상담 및 포획틀 대여 등의 구조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94마리



개 129마리



고양이 39마리



곰 22마리



수리부엉이 1마리



라쿤 1마리



햄스터 1마리



까치 1마리

“

동물을 향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 동물의 행복과 불행도 동시에 결정됩니다. 동물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희망합니다.

”



공장 단지 침입/고립 수리부엉이 구조



순창 뒷에 걸린 유기견 구조



횡성 마취총 유기견 구조



아산 애니멀 호더 구조

지원사업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위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구조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동물들을 헌신으로 돌보고 있는 사설보호소, 풀뿌리 단체를 독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료와 중성화, 치료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동물
지원

풀뿌리단체
지원

시민구조
지원

고양이 돌봄 지원

포스코 건설과 함께 동네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를 포함해 사료 등 물품 지원과 적절한 제보 응대를 통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했습니다. 2022년에는 마라도에서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하는 주민의 요청으로 직접 마라도에 방문해 고양이 TNR을 지원했습니다. 15마리 고양이를 대상으로 TNR을 시행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양이들에게는 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동네고양이 돌봄 지원



마라도 고양이 TNR 지원

풀뿌리단체 & 시민봉사자 지원

태안 애니멀 호더 구조를 시작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 보호소의 동물들에게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길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돌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는 사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서산 우당탕 보호소
중성화 지원



전국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
사료 지원

쓰담쓰담 치료비 지원

시민의 구조 활동을 응원하고 연대하기 위해, 시민이 구조한 위기 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길 위에 살아가는 생명은 매일, 모든 것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을 위해 손 내밀어주신 시민분들께 도움을 되고자 하였고, 2022년 한 해 181마리 동물들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지원 금액

139,610,748 원

구조동물

8 (개) | 173 (고양이)

지원사유

55 (질병) | 126 (부상)

“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새끼 고양이 '애기'

이 사회가 얼마나 동물들이 살기 힘든
환경인지 알게되어 마음이 아팠는데,
동물자유연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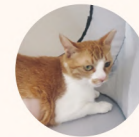
목줄이 살을 파고든 채
도로를 떠돌던 '노을이'

많은 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망설임없이 달려와준 곳은
동물자유연대였어요. 구조된 노을이가 사랑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위기동물 지원사업
쓰담쓰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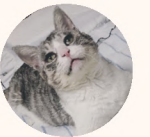
“



장기가 파열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던 '나비'

갑작스러운 큰 치료비가 부담되었는데
후원을 하고 있는 동물자유연대가 쓰담쓰담
사업을 진행 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비뿐만 아니라 다른 길고양이 구조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페인트까지 뒤집어썼던
구내염 걸린 '희망이'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다녔고, 침을 흘리며
돌아다니는 희망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포획하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쓰담쓰담
지원을 받아 치료도 잘 하고 밥도 잘 먹고
안정도 많이 되찾았습니다.

반려동물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활동을 지속합니다.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 속에서 착취당하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 방안을 고민합니다.

동물과 더불어
사는 문화 형성

개식용 종식

동물 영업
규제 강화

동물카페 금지

관련 법 개정으로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될 전망이지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전시업은 여전히 등록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역시 전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사회에 알리고, 인간의 유희를 위해 이루어지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카페 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기묘 입양 캠페인

11번가와의 협업을 통해 유기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입양 권장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2년 개관한 동물자유연대 온캣 입양자 대상으로 입양키트, 핸드북 지원, 음원 제작 등을 통해 고양이 입양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개소주 판매 금지

개소주를 비롯하여 개를 식품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 쇼핑에서 개소주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한 동물자유연대는 네이버 측에 불법식품 판매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되었으며, 포털 사이트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하겠다는 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식용 종식 및 도살 금지 캠페인

2022년 초복을 맞이해 정부에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기 위해 총 31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민 대집회를 주관했습니다. 2021년 11월, 개식용 종식 논의기구가 출범했음에도 기한 연장을 반복하며 개식용 종식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민들의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행진을 진행했으며, 대통령 행정관실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농장동물

산업 속에서 수단으로 고통받는 농장동물 복지 증진과 이용 감소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케이지 사육으로 인한 산란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소비자를 대상으로 케이지프리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역 경주마 복지 수립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산업 내
동물복지 실현

시민 관심 촉구

채식 확산

케이지프리 선언 기업 모니터링

동물자유연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케이지프리를 선언한 기업들이 약속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풀무원, 스타벅스 등이 케이지프리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동물자유연대와 MOU를 맺은 갤러리아는 당초 약속보다 1년 앞당긴 2023년 1월 100%케이지프리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퇴역 경주마 복지 체계 수립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무리한 연출로 인해 사고를 당한 퇴역 경주마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을 고발하고,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말 산업의 폐해를 드러내고 산업 속에서 학대당하던 말들의 복지를 수립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진 '도축장 가는 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대 활동, 법 개정 운동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피학대 말 구조 활동

충남 부여 폐축사에 버려져 방치된 말 두 마리를 구조해 제주에 있는 말 생추어리로 이송했습니다. 열악한 말 산업의 실태에 대해 알리기 위해 언론 보도,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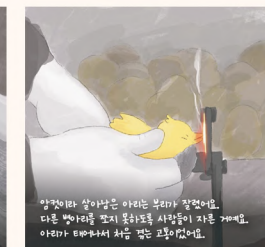
“반려견, 반려묘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들도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걸 알리고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주 말 생추어리에 방문한 시민 후기 중



케이지프리 전환 유도

OWA ASIA와 연대하여 맥도날드 케이지프리 전환 요구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케이지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 중이며, 그 일환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5개 지하철 역에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닭이 땅을 밟지 못하는 이유"
1, 2, 3화 보러가기

야생·전시 동물

동물이 각자의 습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상업적 목적의 동물 전시에 반대하고 야생동물 사육 산업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육곰 구출 운동과 더불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해 곰 사육 종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시 동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하위 법령 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곰에게
자유를

고래류
전시 금지

생태형
전시 전환

사육곰 22마리 미국 생추어리 이주

강원도 동해시 사육곰 농장에서 구조한 22마리 사육곰을 미국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한 22마리 사육곰은 야생과 닮은 30만 평 이상의 방사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곰 사육 종식 활동

2022년 1월 정부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여 환경부, 시민단체, 곰 사육 농가가 참여하는 '사육곰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여 사육곰 특별법 제정 및 사육곰 구조를 위한 기반 마련 촉구 등을 비롯해 곰 사육 산업의 실질적 종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곰마워> 기획을 통해 사육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물 전시 규제 강화 촉구

법 개정 활동 결과 동물원법 전부개정안,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동물 전시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시설 내 동물 복지 증진, 동물 쇼, 체험 프로그램 제재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고래류 전시 금지 사업

거제씨월드, 호반 퍼시픽리움 큰돌고래 두 마리 불법 반입·반출 사건을 고발하고 탄원을 조직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방류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 촉구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2022년 4월, 호반퍼시픽리움이 큰돌고래 두 마리를 거제씨월드에 무단 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물자유연대는 호반퍼시픽리움과 거제씨월드를 돌고래 불법 반입, 반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을 조직해 5,732명의 탄원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경우 야생 방류의 부적합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호반에 비봉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책과 입법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실현방법에 대해 아직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물보호와 복지를 정책으로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권리와 복지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각 분야의 자료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물이용
실태조사

동물학대
대응 체계 개선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20대 대선 및 6.1 지방선거 대응

2022년에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선출하는 20대 대선과 6.1 지방선거가 치뤄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운동진영의 공동 정책의제와 5대 과제 18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 수용여부를 질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후보들이 응답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대응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동물보호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적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소위 '돌고양이'의 포획 관리 지침의 문제에 대해 지적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은주 위원

3-3. '돌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방사 원칙이나 대상지 선정 기준이 포함되어 하고, 현장 지침에 따라 총기 포획과 안락사가 가능해, 길고양이와 돌고양이의 관리 방법이 다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요?

- 네, '돌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 필요성에 동의함.
- 국립공원 등 현장에서 돌고양이 안락사가 이미 중단된 점, 농식품부 길고양이 증성화 관리 사례를 고려하여,
- 안락사 규정 삭제 여부, 어주 방사 기준 설정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지침을 개정하겠음.

이슈리포트 발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저해하는 동물 관련 문제들에 대해 그 원인과 국내외 사례, 대안 등을 제시하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021 유실·유기동물 발생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수평아리 도태 문제 및 재난시 반려동물 동반대피 문제에 대한 보고서도 준비 중입니다.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제작

그동안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사건의 조사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동물보호감시원들이 본인들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모호한 동물보호법 규정으로 인한 현장조사 및 격리조치에 대한 법적 부담,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의 부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감시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각 단계별 지자체와 경찰 등 동물학대 사건 주체별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단계별 대응요령과 동물보호감시원의 권한과 행정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았습니다. 신고로부터 현장조사, 피학대동물의 격리,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 및 민법의 개정 요구, 동물학대 금지 및 동물관련 영업규제 강화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동물원법 개정, 동물복지 정책 개발 등 동물의 법적지위 향상과 보호관리 수준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과 제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물이용
실태조사

동물복지의
과학적 근거 마련

합리적
대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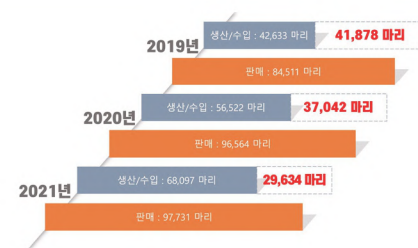
산란계 농가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 조사

산란계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2025년 시행되면 중소규모의 산란계 농가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서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고 중소규모 농가들이 동물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2년에는 산란계 농가들의 케이지프리 전환 의향을 조사하였으며, 동물복지 전환에 있어 정부 지원 필요성을 토론회 등을 통해 알렸습니다.



동물 생산/수입/판매 영업 실적 조사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며, 동물생산 및 판매업 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생산/수입/판매영업자는 매년 영업실적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동물자유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으며, 그 내용도 부실했습니다. 실제 생산하거나 수입한 동물의 수보다 판매된 동물의 수가 많은 결과가 나와 허술한 반려동물 영업관리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개관

한국동물복지연구소는 동물자유연대 부속 연구소로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및 야생동물의 사육환경과 건강상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평가 및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캠페인과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동물복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딤돌을 구축할 것입니다.



케이지 프리 연구

외국 기관의 편당을 받아 케이지 축사의 농장주들에게 동물복지 관련 의향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사사육 전환에 필요한 대안과 정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설문조사 이후 농장주 참여 정책토론회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실태 조사

서울시 동물보호과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82개의 애견카페, 고양이카페,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조류카페, 파충류카페의 사육환경, 동물의 건강상태, 안전 및 위생관리, 위법성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보고서 내에 결론 및 제안에서 시설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였고 정책 및 법개정과 관련된 제안을 하였습니다.



재정보고

2022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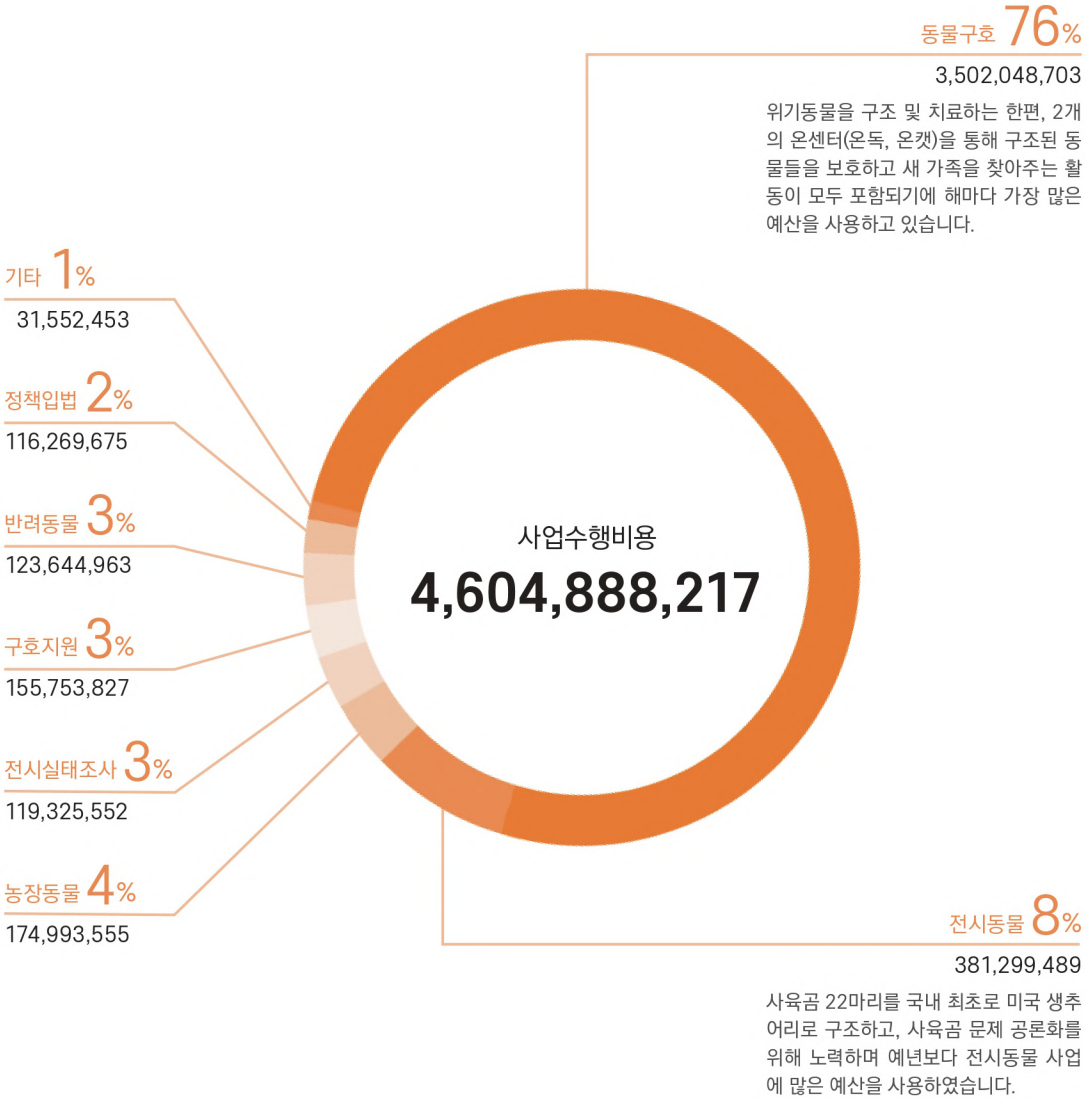
구분	금액 (원)
공익목적 사업 수익	8,281,522,641
- 기부금 수입	7,974,523,343
정기후원회비	6,198,694,669
일반후원금	1,444,832,568
물품후원	330,996,106
- 진료수익	15,919,295
- 연구후원수익*	291,080,003
이자 수익	30,147,588
수입합계	8,311,670,229

*수입 발생시점은 2022년이나 과업 수행은 2023년에 진행되는 선수후원금이 208,697,478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 지출

구분	금액 (원)
사업수행비용	4,604,888,217
- 동물구호사업	3,502,048,703
- 동물구호지원사업	155,753,827
- 반려동물복지사업	123,644,963
- 전시동물복지사업	381,299,489
- 전시체험실태조사	119,325,552
- 농장동물복지사업	174,993,555
- 정책, 입법사업	116,269,675
- 기타사업	31,552,453
일반관리비용	286,903,799
모금비용	626,167,981
자산취득*	1,940,772,830
지출합계	7,458,732,827

*2013년 남양주에서 오픈했던 국내 최초의 동물보호시설(현 '온독')에 이어, 2022년 파주 지역에 고양이 전문 보호시설인 '온켓'을 설립하며 1,707,425,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QR코드를 통해 2022 동물자유연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확인하세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당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카카오톡 친구하기



동물자유연대
뉴스레터 구독하기